

Sumitomo, LCD 재료 중점투자

2005년 매출액 1800억엔 목표 ... 컬러필터 비롯 삼성전자 의존 높아

일본의 Sumitomo Chemical(住友化學)이 정보전자화학부문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성장이 예상되는 LCD(Liquid Crystal Display)용 컬러 필터, 편광 필름을 중심으로 최근 2년 동안 550억엔을 투자해 한국, 타이완에서 생산체제 정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컬러필터에 추가로 280억엔을 투자해 제5세대 생산능력을 2배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Sumitomo Chemical은 적극적인 투자로 정보전자화학부문을 성장시켜 2005년 매출액을 2002년 대비 2배 증강한 1800억엔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보전자화학부문을 Polyolefin, Life Science에 이어 제3의 핵심사업축으로 삼고 있는데, 이 부문의 200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약 40% 늘어난 800억엔에 달했으며 2003년은 1200억엔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보전자화학 부문의 핵심사업인 컬러필터는 한때 고전을 면치 못했으나 외판메이커로서 제5세대 중 선행하고 있는데 이는 Regist를 비롯한 재료, 공장 Operating 등의 기술력 때문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LCD 세계 최대기업인 삼성전자와의 관계로, 삼성전자와는 현지 자회사인 동우 화인켐을 통해 반도체, LCD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의 제5세대 LCD용 생산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03년 3월에 양산을 개시한 동우 STI·평택공장 제1라인은 Regist 도포에 Spinless방식 등 신기술을 도입했는데, 삼성 측도 놀랄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제 2라인 건설도 삼성측에서 강력히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2라인이 풀가동되면 700억엔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점유율도 약 30%로 늘어나 Toppan Printing에 이어 2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편광필름의 증산에도 의욕적인데, 한국내에 원반(原反)에서의 일괄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02년 10월에 신회사 <동우광학필름>을 설립했다. 평택에서 연산능력 400만㎡의 공장건설이 막바지 단계이며 6월의 시운전 개시를 앞두고 있다.

Sumitomo Chemical의 정보전자화학 투자실적(2001-02)

투자부문	투자액
한국 컬러필터 생산판매거점 확립	270억엔
한국 컬러필터 생산판매 증설	280
한국편광필름 생산판매거점확립	67
타이완 편광필름 高雄공장증강·臺南공장신설	65
신STI Technology 경영강화	46
MO 에피 Wafer 일미생산판매체제 확충	13
편광필름 신합리화제법도입	10
중국 정보전자재료사업거점확충	5
기 타	74
합 계	830

타이완에서는 Inabata와의 합병인 SC-1K Technology가 2003년 12월에 일괄체제로 이행할 예정이며, 중국에서도 上海지구에서 가공능력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증설계획에 따라 생산능력은 2배 이상 증가한 한해 1500만㎡로 높아지게 된다.

Sumitomo Chemical은 컬러필터 부문등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우려되고 있으나 타이완 메이커 등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기

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매출액 1800억엔 시점에서 삼성전자 비율은 20-25%가 될 것으로 보인다.

<Chemical Journal 2003/12/22>